



한덕수 국무총리, 영국 방문Ⅱ (5.4-5.7)

- 찰스 3세 국왕 대관식(5.6), 국왕 주최 리셉션(5.5)

- 영국을 방문 중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5.6(토) 오전에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개최된 찰스 3세 국왕 대관식에 우리 정부 대표로 참석했다. 이번 대관식은 영국 왕실에서 70년 만에 개최되는 대관식이다.
 - ※ 故엘리자베스 2세 여왕 대관식은 1953.6.2.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개최
 - ※ (대관식 식순) △찰스 3세 국왕과 카밀라 왕비가 10:30 버킹엄궁에서 출발하여 마차 퍼레이드 후 웨스트민스터 사원 도착 △캔터베리 대주교 주례로 11:00 대관식 거행 △13:00 버킹엄궁으로 복귀하는 마차 퍼레이드 △13:45 버킹엄궁 발코니에서 인사
 - 한 총리는 대관식 시작에 앞서 참석贵宾들을 맞이한 「제임스 클레벌리」(James Cleverly) 영국 외교장관과 인사를 나누었으며, 「클레벌리」 장관은 인태 지역 내 주요 파트너인 한국과의 협력 강화를 희망한다고 했다.
 - 한 총리는 또한 포르투갈, 베트남, 앙골라, 기니, 키르기스스탄, 카자흐스탄, 이집트, 레바논, 쿠바, 온두라스, 엘살바도르, 도미니카 공화국 등 대관식에 참석한 다른 여러 정상급 인사들을 조우한 계기에 양국 관계 등에 대해 환담을 나누었다.
- 한편, 한 총리는 어제 개최된 찰스 3세 국왕 주최 리셉션에서 찰스 3세 국왕에게 대관식 개최를 축하한다고 하며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였으며, 찰스 3세 국왕은 한 총리의 대관식 참석에 사의를 표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각별한 안부를 전해줄 것을 요청했다.

- 한 총리는 「리시 수낙」(Rishi Sunak) 영국 총리를 만나 한-영 양국 간 가치 연대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고, 「수낙」 총리도 이에 공감했다.
- 또한 리셉션에 참석한 미국(질 바이든 영부인), 독일(프랑크 발터 슈타인 마이어 대통령), 브라질(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), 중국(한정 부주석), 인도(자그립 단카르 부통령), 아일랜드(마이클 히긴스 대통령, 레오 바라드카 총리), 이탈리아(세르지오 마타렐라 대통령) 등 정상급 인사들과 환담을 나누었다.
- 이번 한 총리의 찰스 3세 국왕 대관식 참석과 영국 방문은 작년 윤석열 대통령의 엘리자베스 여왕 국장 참석과 한-영 정상회담으로 마련된 핵심 우방국 영국과의 한층 강화된 파트너십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.

담당 부서	국무조정실	책임자	과 장 박영철	044-200-2136
	외교안보정책관실	담당자	사무관 황상윤	044-200-2135